



“늘 간절했다… 더워져야 좀 미쳐요” KIA 반등 이끈 ‘임시 주장’ 박찬호

10경기 타율 0.372… 불방망이
‘공수겸장’ 유격수에 ‘리더십’도
박찬호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저는 원래 후반기 선수입니다. 더워져야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임시라는 단어는 더는 중요하지 않다. 6월, KIA 타이거즈의 대반등을 이끈 건 29세 유격수 박찬호였다. 주장 나성범의 부상 공백 속에서 그라운드 안팎을 누빈 박찬호는 공수는 물론 리더십까지 더하며 팀 중심에 섰다.

지난 4월 말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한 나성범을 대신해 임시 주장을 맡은 그는 6월 들어 팀 내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고, 호수비로 실점을 막아내며 팀 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그는 타율 0.372(43타수 16안타), 1홈런 5타점 3도루를 기록했다. 연승의 시작이었던 14일 NC전에서 박찬호는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볼넷 출루 후 득점, 적시타 포함 4타수 2안타(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

고, 다음 날에도 멀티히트로 타선에 불을 지폈다.

KT와의 주말 3연전(17~19일)에서는 간절함이 돋보였다. 17일 1회와 6회 박이닝의 도화선 역할을 했고, 18일에는 3점차로 뒤진 5회말 2타점 2루타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으며, 7회에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내야안타로 역전 흐름을 주도했다.

수비에서도 박찬호는 단연 존재감이 빛났다. 21~22일 SSG전에서는 각각 4타수 1안타, 5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도 유격수 수비로 5개의 아웃 카운트를 직접 책임졌고, 특히 박성환의 강습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병살 처리하며 2년 연속 KBO 유격수 수비상 수상자의 면모를 입증했다.

연승이 끊긴 24일 키움전에서 그는 4타수 3안타 1득점 1볼넷 2도루로 분전했다. 1회 볼넷 출루 후 득점, 3회와 4회, 9회 연속 안타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부상과 전열 이탈이 잇따른 올 시즌 KIA 내야진에서 박찬호는 25일 기준 292타석을 소화하며 최형우(298타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타석을 책임지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81(249타수·70

안타)로 다소 아쉽지만, 6월 타율은 0.321, 최근 10경기 타율은 0.372까지 치솟으며 부활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엔 부진했다. 3월 타율 0.222, 4월 0.286, 5월엔 0.250에 그쳤고, 팬들의 우려도 컸다. 그러나 6월 들어 박찬호는 자신의 장점인 빠른 발과 정확한 콘택트, 안정적인 수비에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까지 더하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로 올라섰다.

임시 주장을 맡으며 느낀 무게도 컸다. 그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 주장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며 “팀이 안 좋을 때 내가 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이제부터라도 성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동료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매 경기 옆에서 있는 선수들이 바뀌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출전하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았다. 김선빈, 김도영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도 하게 됐다”며 “지금들이 이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 뿌듯하고,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후반기가 무더위가 더할수록 더 강해지는 자신을 믿고 있다. 간절함과 책임감, 그리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6월의 주장’이 된 그는, 이제 KIA의 진짜 여름을 이끌고 있다. **민현기 기자**

◀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지난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임시 주장 마크인 ‘C’를 유니폼에 붙인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AI페퍼스, 한국실업배구연맹&퓨처스 챔피언 출전

내달 3일 IBK와 첫 경기

AI페퍼스는 선수단 전원 참가신청 한 상태다. 다만 박정아, 고예림은 상황에 따라 경기를 땔 예정이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실업연맹이 연계해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으로 지난 3월 단장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출전 기회가 적었던 2진급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익힐 기회를 주고자 14개 팀의 실업연맹 주최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남녀부 모두 A조와 B조 풀리그를 거쳐 각 조 1위와 2위가 준결승부터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며 △5년 차 이하 △전시즌 V-리그 50%(18경기) 이하 출전 △전시즌 100세트 이하 출전 △대표팀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중 1개 조건만 충족하면 출전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KIA 최형우, 1700타점 금자탑… KBO 43년 만에 첫 기록

24일 키움전서 1회초 3점 홈런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최형우(42)가 KBO리그 최초로 1700타점 고지를 밟았다.

최형우는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첫 타석이었던 1회초 1사 1·2루 상황 최형우는 공 한 개를 골라낸 뒤 키움 선발 김윤하의 투구가 가운데에 몰리자 시속 142km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0m의 대형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전 경기까지 1698타점을 기록 중이었던 최형우는 이번 3점 홈런으로 1701타점을 기록하며 시즌 14호이자 통산 409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같은 기록은 지난 1982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운데)가 지난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초 3점 홈런을 터뜨리며 KBO리그 최초로 1700타점 고지를 넘은 뒤 팀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가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기록으로 2위는 1587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SSG 랜더스

민현기 기자

광주대 출신 김봉수, 동아시안컵 축구 ‘태극마크’

홍명보호 ‘수비형 미드필더’ 낙점

광주대학교 출신 축구스타 김봉수(대전하나시티즌·MF·사진)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김봉수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동아시안컵 대표팀 23명 명단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리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필



요 시 센터백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김봉수는 2021년 제주 유나이티드FC에서 프로 데뷔해 96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했고,

2024년부터 김천상무에서 53경기 3도움으로 활약한 뒤 최근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 멀티 자원이다. **최동환 기자**

공학도에 챔피언까지… 전남대 송시훈, 국제 보디빌딩 3관왕

전남대학교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식품공학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시훈(사진)씨가 ‘2025 국제피트니스보디빌딩연맹(IFBB)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지만에서 개최돼 23개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2025 국제피트니스보디빌딩연맹(IFBB)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송씨는 해당 경기에서 △남자부 클래식 보디빌딩



+175cm부문 △남자부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175cm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각 체급 우승자 간 최종 비교 심사에서 종합 우승(오버올)을 거머쥐

며 3관왕에 올랐다. 송씨는 현재 식품 및 천연물화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면서도 보디빌딩

선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스터 YMCA 선발대회’ 남자 일반부 -80kg급에서 1위 및 대상을 수상했고 ‘2023 미스터 코리아’ 클래식 보디빌딩 -180cm급에서도 정상을 차지한 바 있다.

송씨의 지도교수인 조정용 교수는 “학문과 스포츠라는 두 분야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송시훈 박사와 정성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